

# 10대, 우리의 성(性)을 말한다

## 초등학생의 이성교제

'사랑', '연애', '이성친구' 이런 단어들이 더 이상 초등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는 서로 사랑한다며 사귀는 경우가 흔하다. 아이들은 거금을 들여가며 기념일을 챙기고 선물을 사주기 바쁘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것으로 과연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을까? 돈을 낭비하고 어설피게 어른들 흉내만 낸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아마 초등학생들의 이성교제의 이유에는 '사랑' 보다는 '즐거움' 더 클 것이다. 사춘기 때에는 마음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건전한 이성교제가 더욱 더 필요하다.

우리는 아직 여러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 친구' 보다 '좋은 친구'로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모른 채, 어른들 흉내만 내는 것은 바람직한 이성교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맞는 이성교제는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보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해야 할 것이다.

서울 미양초등학교 6학년 2반 박상윤

## 올바른 성문화

사이버 공간은 모든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다. 우선 무지막지하게 날아오는 스팸메일들... 나도 한번 잘못 눌렀다가 엄청 놀란 적이 있었다.

아마도 성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음란물을 봤을 때에는 학생들은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음란물은 꼭 나쁜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인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 같다.

음란물도 큰 문제겠지만 이것만큼 심각한 사이버 성범죄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채팅이나 화상채팅을 통한 원조교제 등이 있다.

실제로 내가 메신저를 켜놓으면 음란한 말로 쪽지를 보내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정보의 세상이라고 불리던 공간이 성문제에 대한 실상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인터넷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깨우치고 올바른 성문화를 만들어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은일정보산업고등학교 1학년 5반 황승희